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열심히 살아야지**

-김성일 장로-

한때 필자가 모기업의 간부로 일하고 있을 때 걸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크리스천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낭패를 겪어야 했다. 도대체 중간 보고가 없어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려서 재촉을 해도 이것 저것 문제점만 늘어놓는다. 그러다가 겨우 다 되었다고 하여 결과를 받아보면 온통 허점 투성이어서 아랫사람 때문에 필자가 곤경에 처했던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오히려 안심할 수가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일을 열심히 한다. 일찌감치 현장에 뛰어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찾아내어 확인하며 자신의 힘만으로 해내기가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안팎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매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도중에 자주 와서 확인해 가며 일을 치밀하게 해놓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일을 맡겨서 그것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직장에서 하는 일 말고도 거의 모든 일에서 같은 유형의 비교가 성립된다. 시간 약속이 사회에서는 잘 지켜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그렇게 안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꺼낸 말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고 상식마저 잘 통하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성의 없이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배운 것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야 하니까 열심이 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대충 해놓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완전케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 즉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일을 대충만 해놓고도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며 맡겨 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했지 일을 맡기라고 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 계셨고 너무 피곤하여 풍랑으로 요동하는 배 안에서든 곤히 주무셨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다. 그 분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여인에게도 마음을 쓰셨고 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까지 부르셨을 정도로 치밀하게 일하셨으며 남은 음식을 챙길 정도로 확인과 점검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고도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우리도 모두 그분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길보리교인"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2월 2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웨스트민스터성당 지하에 있는 한 성공회신부의 묘비에**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꿈을 꾸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조그만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 가족 중 아무도 달라진 사람은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를...

# 주 일 예 배

살인자 ) 리얼리스트와 살인자  
강도 (관목드)  
씨리 ) 다 같이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7(사 40)

구인 용병(동)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본인(총성)관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98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양심법  
올라가  
성령님  
하루씩 뜻에 따라 사역함  
누가복음 19:1-10(신128)

최윤희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인 도 자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성령님  
대강절(1) 찾아오신 예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02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 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인 도 자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인 도 자

김성국 목사

## <12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 안 내
2일	최윤희	인치혁	김순자	사카시다.윤형권	최재학.정희자
9일	최재학	윤한나	김영길	김성국.김시욱	박일영.윤형권
16일	김교섭	윤형권	김정미	이재영.이종운	정덕수.김순자
23일	김순자	임혜자	김종건	김교섭.최윤희	이재영.인치혁
30일	김영길	정덕수	노은숙	박상옥.양경배	김종건.박상옥

영등강을 갖은자: 성공 (자신의 무모함을 안다)

서  
기대함  
바라본  
기뻐함  
예수사랑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예배 7:30 pm | 금요새벽기도: 6:00 | 아동.학생.청년부: 주일 1시

## 교 회 소 식

- 대강절: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마음, 준비된 마음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쁨으로 만나게 할것입니다.
- 당회: 6일(목) 저녁 8시
- 금주는 구역예배 주간입니다. (1구역: 임혜자, 2구역: 송정섭)  
\*1구역: 정덕수 집사 자택(1E Park Ave. Takapuna. 486-1277)  
\*박기원성도. 이광희 집사 : 2구역
- 청년들의 KOSTA, 지난주간에는 풍성한 말씀으로 행복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조금 우리 입맛에 생소한 식사였다지만 이밥에 배부를 수 있었음에 감사.
-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7기) 3번째 모임: 월요일(3일) 7:30분 Hall  
\*현재 7기 과장자: 김순자. 김종건. 김정미. 김진희. 신영하  
윤형권. 이재영. 인치혁. 정덕수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여성교우들의 기도모임)  
믿음의 어머니들의 중보기도는 가정과 교회를 떠받치는 능력이 됩니다.  
\*일시: 화요일(4일) 저녁 7:30. 주일학교실
- 학생부 야외친교모임: 토요일(8일) 낮 12시  
내 자녀같은 학생들... 아버지, 어머니 심정으로 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쯤, 애정어린 관심으로 들여다보러 오신다면 성도들이 모여 자연스러운  
야유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갈보리 가족이 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광희 안수집사, 이규임 집사. 인규. 명주  
☎09)299-9876 ☐ 315 Kaipara Rd. Papakura
- 임마누엘교회에서 갈보리가족을 초대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갈보리가족과 함께 은혜 나누고저 초대.  
\*오늘 오후 1:30. 임마누엘교회당
- 12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2일	대강절 첫주일 성찬주일	기초성경공부(3일). "믿음의 어머니"(4일) 구역예배(7일)
9일		기초성경공부(10일)
16일		기초성경공부(17일). 토요식사봉사(22일)
23일	성탄주일	"Christmas in the Family" 성탄축하의 밤(24일)
25일(화)	성탄절	성탄예배
30일	송년주일 이삭줍기봉헌	송구영신예배(31일)